

공공도서관 청소년 전용 공간에 대한 사서의 인식 연구*

- 부산시 도서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ibrarians' Perceptions of Dedicated Youth Spaces in Public Libraries: Focusing on Libraries in Busan City

임 여 주 (Yeojoo Lim)**

이 연 옥 (Yeon Ok Lee)***

< 목 차 >

I. 서 론

II. 선행연구

III. 연구 방법

IV. 분석 결과

V. 결론 및 제언

요 약: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청소년 전용 공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25개관과 해당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 1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서비스 담당 경험이 있는 사서 3명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부산시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청소년 이용자와 청소년 서비스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청소년 전용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청소년 전용 공간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고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관계자들의 인식 전환이 우선되어야 하며, 사서는 청소년이 도서관 공간의 진정한 주체임을 인식하고 그들이 주도적으로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청소년의 의견이 수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주제어: 공공도서관, 청소년 전용 공간, 청소년 서비스, 사서의 인식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public librarian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youth-only spaces by conducting a survey of 142 librarians working at 25 public libraries in the Busan area that provide services for youth, and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3 librarians who have experience in youth services. The research findings showed that public librarians in Busan highly recognize the necessity of teen users and teen services, and also demonstrated positive attitudes toward the need for youth-only spaces. In particular,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operating youth-only spaces was found to be respecting youth opinions and promoting their participation. To realize this, a shift in awareness among library stakeholders must be prioritized, and it was confirmed that librarians should recognize that youth are the true owners of library spaces and support them in proactively creating these spaces. Additionally, it was emphasized that youth opinions should be actively reflected in various service areas including collection development, program planning, and operations.

KEYWORDS: Public Library, Youth Space, Youth Services, Librarian's Perception

* 이 논문은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2024), <시민도서관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 및 서비스 활성화 연구>의 일부 내용을 토대로 수정·보완한 것임.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yeojoolim@pusan.ac.kr / ISNI 0000 0004 7784 5407) (제1저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accesspt@pusan.ac.kr / ISNI 0000 0004 6487 2027)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5년 5월 16일 • 최초심사: 2025년 6월 1일 • 게재확정: 2025년 6월 10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6(2), 55-85, 2025. <http://dx.doi.org/10.16981/kliss.56.2.202506.55>

※ Copyright © 2025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국제도서관연맹) (2008, 3)의 청소년 대상 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청소년서비스를 위한 도서관의 사명은 개인이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이는 청소년이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청소년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필요한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즉, 청소년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원과 공간을 기반으로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민독서실태조사(2023, 163; 168)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중학교 학생은 80.3%, 고등학교 학생은 79.7%로 도서관 이용률이 전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아닌 학교도서관이었다.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73.3%가 주로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였으며, 32.5%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방과 후에는 학원 및 과외 활동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여유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의 낮은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주말 또는 방학에는 공공도서관을 방문할 시간이 비교적 충분함에 불구하고, 약 70%에 달하는 학생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는 공공도서관이 자원과 공간 측면에서 청소년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도서관의 물리적 공간은 청소년의 공공도서관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어둡고 음침한 분위기나 단조롭고 지루한 환경은 청소년이 도서관 방문을 꺼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빛이 잘 들어오는 밝고 개방적인 공간이나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가구가 갖춰진 환경은 청소년의 도서관 이용을 유도하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Agosto & Hughes-Hassell, 2005; Cranz & Cha, 2006; Meyers, 1999). 청소년이 도서관으로부터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더욱 적극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게 된다. 환영받는다는 느낌은 도서관이 청소년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때 형성되며, 청소년의 정보요구는 학업, 독서, 또래와의 교류, 혼자만의 시간 확보, 미디어 활용 등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도서관 공간은 이러한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Fisher, 2003; Howard, 2011; Young Adults Library Services Association, 2012).

사서는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공간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사서가 청소년 대상 도서관 서비스 공간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는 공간 운영과 공간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의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Kuhlmann et al., 2014; Ornstein & Reid, 2022). 이를테면, 도서관 공간 설계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지 여부와 반영한다면

그 수용 범위를 결정하는 것 또한 사서의 판단에 달려있다. Bernier, Males, & Rickman(2014)의 연구에 따르면, 도서관 공간의 개발과 디자인 과정에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도서관은 그렇지 않은 도서관에 비해 청소년의 도서관 방문률과 도서관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참여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주체인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청소년 전용 공간에 대해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병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서들의 의견을 폭넓고도 심층적으로 수집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전용 공간 및 관련 서비스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I. 선행연구

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United Nations(UN; 국제연합)(2025)에서는 청소년을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20세 이상의 사람도 청소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세계보건기구)(2025)과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UNICEF; 유니세프)(2025)에서는 10세에서 19세까지의 사람을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어 그 범위가 더 축소되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2025)에서는 청소년을 “중·고등학생 또는 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IFLA(2018)에서는 청소년이 “보통 12~18세로 규정”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계에서 주로 언급되는 연령 범위인 만 12세에서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청소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국 공공도서관에 청소년을 위한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1980년대부터 제기되어 왔다. 초기에는 주로 자료실과 열람실 확보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서울특별시 도서관연구회(1985)는 공공도서관의 절대적 부족과 생활공간의 협소로 인해 청소년들이 사설독서실을 이용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도서관이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학습 및 자기교육의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이경란, 한복희(2009)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도서관 내 청소년 공간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를 확인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8.7%가 ‘청소년 전용자료실의 설치’의 필요성을, 11.9%는 ‘청소년들을 위한 열람석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공공도서관에 청소년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필요

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한국에서 청소년 전용 공간에 대한 논의 중 자료실과 열람실을 넘어서 그 밖의 공간에 대한 논의는 201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서울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인식 및 정보원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정미(2015)의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 등 환경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묻은 질문에 응답자의 35%는 ‘카페 등 문화시설의 확충’, 6%는 ‘회의실 등 지역사회 모임공간의 확충’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도서관이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이길 원하는 청소년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또한 도서관의 기능을 단순히 책을 열람하거나 학습하는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여러 사람이 모여 토론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하였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지선과 장윤금(2017)은 청소년 특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공도서관 내 청소년 공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자료실의 공간구성 및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조사 결과, 청소년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한 공간은 여전히 ‘개인학습 및 공부를 위한 공간’과 ‘여가 독서 공간’이었으며, 이외에도 ‘그룹 학습 및 모임 공간’과 ‘정보활용기기 이용 공간’, ‘휴게 공간’ 등에 대한 요구가 다수 제기되었다. 이 연구는 청소년이 도서관을 단순히 공부하거나 독서하는 장소로만 인식하지 않고, 타인과의 교류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하고자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장아리(2018)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공공도서관에서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 자료열람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자료열람실을 이용하는 주요 목적을 살펴보았다. 절반 가까이(47.4%) 되는 청소년이 ‘개인자료를 이용한 공부’를 꼽았고, ‘노트북 및 스마트기기의 이용’이 24.5%, 자료 대출이 13.5%, 자료실의 자료 열람이 11.9%로 나와, 청소년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개인 공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청소년들이 자료열람실의 학습공간에 대한 요구사항이었는데, 응답자의 10.8%는 ‘공간 내에 휴게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기를’ 원했으며, 9.2%는 ‘음악감상이나 영화감상과 같은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함께 조성되기를’ 희망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조용하거나 경직된 분위기의 공간보다는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의 공간 환경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연옥(2025)은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전용 공간 및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 및 서비스 설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들은 공공도서관 내 청소년 전용 공간에 대해 높은 수요를 보였으며, 특히 휴식을 필두로 하여 개인 학습, 여가 활동, 또래와의 교류 및 모임을 지원할 수 있는 다기능적이며 유연한 공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산·울산·경남지역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전용 공간 설치 현황, 공간 내 시설 유형,

그리고 이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분석한 이진화와 강은영(2022)의 연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93개 공공도서관 중 청소년 전용 공간을 갖춘 도서관은 22개관(23.7%)에 불과하였다. 이 중 17개관(73.9%)은 청소년 서가를 갖추는 방식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청소년 열람 공간, 휴식 공간, 동아리(모임) 공간을 마련한 도서관은 6개관(26.1%)에 그쳤다. 공공도서관에 청소년 전용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과반수의 사서(58.1%)가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간 구성에서는 그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서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전용 공간에 필요한 시설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 서가 외에도 청소년 동아리(모임) 공간, 열람 공간, 휴식 공간, 놀이 공간이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한 수요가 고르게 나타나, 앞으로 공공도서관 청소년 전용 공간이 보다 복합적이고 다기능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공공도서관 청소년 공간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인식은 해외에서 보다 일찍 시작되었다. Meyers(1999)는 청소년 대부분이 도서관을 어둡고 지루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며, 도서관이 더 밝고 친근하며, TV 보기, 음악 듣기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소년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과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청소년이 성인이나 어린이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들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Fisher(2003)는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에 청소년의 학교 숙제를 지원할 수 있는 ‘학생 전용’ 서가가 있어야 하며, 공부하기에 적합한 조용한 공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Howard(2011)의 연구에서도 역시 청소년들은 더욱 밝고 다채로우며 편안한 분위기의 공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공간 유형은 또래와 함께 어울려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었다.

Braun et al.(2014, 14)은 미국 청소년도서관서비스협회(YALSA)를 통해 발행한 연구자료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도서관 서비스의 미래: 실천을 위한 제안’(The Future of Library Services for and with Teens: A Call to Action)에서 전통적인 도서관 청소년 서비스와 미래의 도서관 청소년 서비스를 비교하였는데, 이들이 제시한 변화의 핵심은 도서관이 “연결하는 곳이자, 창작하는 곳이며, 존재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도서관에서 사람들 간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고,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창의적인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청소년이 자기 모습 그대로 그저 있을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Braun et al.은 전통적인 도서관 청소년 공간이 책과 인쇄자료로 가득한 서가, 고정된 책상과 의자 중심의 학습 환경으로 구성되어 왔다면, 미래의 도서관 청소년 공간은 청소년 이용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재배치할 수 있는 가구로 구성될 것이며, 개인 학습뿐 아니라 협동학습, 사회적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Braun et al.의 연구가 발표된 지 11년이 지난 지금, 이들이 예측한 도서관 내 청소년 공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곳들이 많다. 로스엔젤레스 공공도서관이 마련한 청소년 전용 공간인 Teen'Scape에는 청소년을 위한 컬렉션이 구축된 전용 서가와 더불어, 조용히 독서할 수 있도록 편안한 의자와 테이블을 마련한 독서 공간, 그리고 그룹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넓은 세미나 공간, 대형 TV와 편안한 소파를 갖추어 또래 간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고루 마련되어 있다 (teenscapelapl, 2025; TESSA, 2025). 시카고 공공도서관에서는 디지털 학습 공간을 콘셉트로 하여 구성된 청소년 전용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숙련된 멘토의 도움을 받아 자신만의 음악, 비디오, 2D 및 3D 디자인, 사진, 팟캐스트를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으며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다(digitalyouthnetwork, 2009; YOUmediaChicago, 2018). 보스턴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전용 공간인 Teen Central에도 청소년 서가와 개인 학습 공간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게임을 하며 어울릴 수 있는 공간, 음악과 비디오, 3D 모델링과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공간 등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고루 지원하는 공간이 제공되고 있다(Boston Public Library, 2025).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청소년 전용 공간이 마련된 공공도서관이 많지는 않으나,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17년 개관한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은 만화책을 포함한 청소년 도서가 구비되어 있는 청소년자료실과 학습실, 미디어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미디어창작실, 보드게임과 탁구, 댄스 등을 할 수 있는 동아리실, 강좌를 위한 문화교실, 그리고 휴게실과 매점을 갖추고 있어, 해외 도서관 못지않게 청소년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춘천시립공공도서관, 2025). 역시 2017년에 개관한 월곡꿈그림도서관과 2020년 개관한 서초청소년도서관 또한 다양한 장서를 구비한 청소년 전용 서가와 편안한 독서 공간, 또래와 어울려 대화하거나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교육 공간과 전시 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다(서초청소년도서관, 2025; 월곡꿈그림도서관, 2025). 2019년 개관한 전주시립도서관 꽃섬의 '우주로 1216'은 공간 기획 단계에서부터 청소년의 요구를 조사하고 콘텐츠 기획, 공간 설계 및 시공까지 청소년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한 곳으로, 공간의 주인이 청소년이라는 것을 뚜렷이 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우주인', 성인을 '지구인'으로 부름으로써 차별화를 두고 있다(전주도서관, 2025).

도서관에서 청소년 전용 공간의 운영에 청소년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은 Ornstein과 Reid(2022)의 연구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Ornstein과 Reid는 청소년 서비스가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는 스웨덴의 Lava 도서관과 TioTretton 도서관, 미국의 Tompkins County Public Library를 대상으로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이 도출한 우수 청소년 서비스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만을 위한 전용 공간 마련, ②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 ③ 청소년을 환영하는 분위기 조성, ④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과 장비의 무상 제공, ⑤ 청소년의 관심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⑥ 공간의 유연성 확보, ⑦ 청소년과의 대화를 중시하는 직원의 존재, ⑧ 다양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소년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

용할 수 있는 인력 배치 등이다. 이는 도서관에 물리적인 청소년 전용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을 존중하고 서비스의 중심에 위치시키는 태도가 전제될 때, 비로소 바람직한 청소년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은 공공도서관이 청소년 전용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실천적 지침으로 평가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전용 공간 및 서비스의 실태를 알아보고,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공공도서관 청소년 전용 공간과 서비스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부산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1. 도서관 대상 설문조사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전용 공간 및 서비스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부산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국가도서관통계(2023년 기준)에 의하면 부산시 공공도서관은 총 52개관이다. 지방자치단체 운영 도서관 35개관, 교육청 운영 도서관 14개관, 사립도서관 3개관이 포함된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49개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였다. 설문은 공공도서관의 청소년서비스를 담당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가 도서관을 대표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2024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보름 동안 부산광역시립도서관과 부산도서관의 협조를 통해 도서관에 온라인설문(모아폼)을 배포하여 총 25개관으로부터 설문이 회수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도서관은 교육청 소속 도서관 12개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 13개관을 포함하여 총 25개관이다. 조사 내용은 도서관 내 청소년 공간 현황에 관하여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 1〉 참고).

〈표 1〉 청소년 공간 현황 관련 설문 조사 내용

구분	항목	항목 수	참고문헌
청소년 공간 현황	- 청소년 공간 운영 형태 - 청소년 공간의 기능 - 청소년 공간 운영 계기 - 청소년 요구 수렴 여부	4	이진화, 강은영(2022) Agosto et al. (2015) YALSA(2012)
계			4

2. 사서 대상 설문조사

공공도서관 청소년 전용 공간과 서비스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부산시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2024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보름 동안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과 부산도서관의 협조를 통해 단위 도서관에 온라인 설문(모아폼)을 배포하여 개별 사서들이 설문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 142명의 사서가 설문 응답하였다.

조사 내용은 청소년 서비스 및 청소년 전용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청소년 전용 공간 운영 방안에 대한 인식, 사서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포함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 2〉 참조). 이 중 7문항에 관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해당 문항의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7개 문항의 Cronbach α 값이 0.894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6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사서의 인식 관련 설문조사 내용

구분	항목	문항 수	참고문헌
청소년서비스 및 청소년 전용 공간의 필요성	- 도서관 이용자로서 청소년의 중요성 - 공공도서관 청소년서비스의 필요성 - 청소년 전용 공간의 필요성	3	이진화, 강은영(2021) 서유진(2022)
청소년 전용 공간 운영 방안	- 도서관의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 방법에 대한 선호 - 전용 공간 조성 시 청소년 요구 파악 및 청소년 참여의 중요성 - 전용 공간 내 세부 공간에 대한 선호 - 청소년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 - 청소년서비스 활성화 방안	5	YALSA(2012) Kuhlmann et al.(2014) Agosto et al.(2015) 이진화, 강은영(2021) 서유진(2022)
응답자의 특성	- 성, 연령, 근무경력, 직위, 소속 도서관 유형	1	
계		10	

분석 대상인 설문 응답자 142명의 특성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여성 121명(85.21%), 남성 21명(14.79%)이 응답하였으며, 연령은 30대 53명(37.32%), 20대 34명(23.94%), 50대 32명(22.54%), 40대 23명(16.20%) 순이었다. 근무경력 5년 미만이 59명(41.55%),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이 36명(23.35%),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이 23명(16.20%), 20년 이상이 24명(16.90%)이었다. 직급별로는 평사서가 121명(85.21%)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중간관리자는 19명(13.38%), 관장은 2명(1.41%) 참여하였다. 소속 기관별로는 교육청 소속 사서가 75명(52.82%), 지자체 소속 사서가 67명(47.18%)이었다.

〈표 3〉 설문 응답자의 특성

구분		N	%
성별	남	21	14.79
	여	121	85.21
	계	142	100.00
연령	20대	34	23.94
	30대	53	37.32
	40대	23	16.20
	50대	32	22.54
	계	142	100.00
근무경력	5년 미만	59	41.55
	5년 이상 10년 미만	36	25.35
	10년 이상 20년 미만	23	16.20
	20년 이상	24	16.90
	계	142	100.00
직급	평사서	121	85.21
	중간관리자	19	13.38
	관장	2	1.41
	계	142	100.00
소속 기관	교육청	75	52.82
	지자체	67	47.18
	계	142	100.00

3. 심층 면담

공공도서관 청소년 전용 공간과 서비스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에서 청소년 담당 사서로서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사서 중 부산 지역과 서울지역의 사서 총 3명을 대상으로 일대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부산지역의 공공도서관 사서 1인과 서울지역의 공공도서관 사서 2인이 면담에 응하였다. 면담은 2024년 7월 1일부터 7월 17일 사이에 전화 또는 줌(zoom)으로 진행되었으며, 면담에 소요된 평균 시간은 최소 26분, 최대 72분으로 평균 45분이었다.

〈표 4〉 면담 대상자의 특성

면담자	직업	성별	면담 소요 시간
면담자 A	C공공도서관 사서	여	37분
면담자 B	S공공도서관 사서	여	26분
면담자 C	W공공도서관 관장	여	72분

면담은 총 8개의 주요 테마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청소년이 여가 시간을 보내는 공간, 청소년의 주요 관심사, 청소년 전용 공간에 대한 의견, 청소년의 삶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기여, 공공도서관 청소년 전용 공간의 강점과 한계, 공공도서관 청소년 전용 공간에 대한 의견, 청소년 주도의 프로그램 운영 경험, 도서관 운영 방식이 면담의 주요 주제였으며, 각각의 주제를 더 심화하는 세부 주제 또한 면담에서 다루어졌다. 면담 대상자들의 동의를 얻어 모든 면담은 녹음되었으며, 클로바 노트를 사용하여 전사(transcribe)되었다. 전사된 면담 내용을 질적 연구 분석 소프트웨어인 NVivo를 사용하여 코딩하였으며, 총 13개의 코드가 생성되었다.

〈표 5〉 청소년 담당 사서들과의 면담 내용

	주제	세부 내용	참고문헌
1	청소년의 주요 관심사	- 공공도서관의 역할 -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의 역할	
2	청소년 전용 공간에 대한 의견	- 청소년에게 필요한 공간	
3	청소년의 삶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기여	- 기여점과 아쉬움 - 공공도서관에 가지 않는 이유	장아리(2018); 이혜원, 장선화(2022)
4	공공도서관 청소년 전용 공간의 강점과 한계	- 강점 및 한계 - 한계 극복 방안	이진화, 강은영(2022)
5	공공도서관 청소년 전용 공간에 대한 의견	- 전용 공간 조성 시 고려사항 - 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지선, 장윤금(2017); 서유진(2022)
6	청소년 주도의 프로그램 운영 경험	- 프로그램의 내용 - 성공 요인	이진화, 강은영(2022); 황윤정 외(2024)
7	도서관 운영 방식	-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도서관 - 청소년이 가고 싶은 도서관	황윤정 외(2024)

IV. 분석 결과

1. 도서관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

가. 청소년 공간 운영 현황

(1) 청소년 공간 운영 형태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공간은 주로 성인실에 청소년 서가나 코너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문 대상인 25개 도서관 중 15개관이 성인실에 청소년 전용 서가 및 코너를 운영하고 있었다. 어린이실에 청소년 서가와 코너를 마련하고 있는 도서관은 2개관이었으며, 청소년을 위한 서가나 코너 등 별도의 공간이 없는 도서관은 7개관이었다. 공공도서관

에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자료실을 둔 사례는 1개관으로, 이 도서관은 최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영어전문도서관이었다. 청소년을 위한 단독 건물의 형태로 운영하는 도서관은 없었다. 종합했을 때,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전용 공간에 기반하는 서비스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공간 운영 형태

구분	N	%
청소년을 위한 전용 도서관 건물(단독 건물)	0	0.00
청소년을 위한 전용 자료실	1	4.00
어린이실에 청소년 서가 및 코너 마련	2	8.00
성인실에 청소년 서가 및 코너 마련	15	60.00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없다	7	28.00
계	25	100.00

(2) 청소년 공간의 공간 기능

공공도서관에 청소년을 위한 전용 자료실, 코너 및 서가가 있다고 응답한 18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해당 공간에서 구현되고 있는 공간적 기능을 분석한 결과, 13개관이 자료제공 및 열람 기능에 가장 중점을 두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한 공간은 6개관, 청소년서비스 담당 직원의 업무 및 서비스 제공 공간이 중심인 도서관은 5개관, 전시 공간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곳도 5개관이었다. 이 외에도 컴퓨터 및 디지털미디어 활용과 창작 공간에 중점을 둔 도서관이 2개관, 청소년의 휴식 및 휴게 공간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이 1개관, 또래 간 친교 및 모임 공간에 초점을 둔 도서관이 1개관으로 파악되었다.

〈표 7〉 청소년 공간(전용 자료실, 서가 및 코너)의 공간 기능(N=18) (복수응답)

구분	N	%
청소년의 친교 및 모임(그룹, 동아리 등)	1	2.63
휴식 및 휴게	1	2.63
자료 및 열람	13	34.21
교육 및 프로그램	6	15.79
놀이 및 체험	2	5.26
전시 공간	5	13.16
컴퓨터 및 디지털미디어 활용과 창작	2	5.26
개인 학습	3	7.90
청소년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 및 서비스	5	13.16
계	38	100.00

(3) 청소년 공간 운영 계기

공공도서관에 청소년을 위한 전용 자료실, 코너 및 서가가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한 18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해당 청소년 공간(전용 자료실, 전용 코너 및 서가 등)을 운영하게 된 계기를 조사한 결과, 과반을 넘는 14개관이 도서관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청소년 공간을 조성·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청소년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경우가 4개관, 타 지역 도서관의 청소년 전용 공간 운영사례의 영향을 받은 경우가 3개관, 교육청 또는 지자체의 요청에 의해 운영 중인 경우가 2개관, 학교나 청소년 인구밀집 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경우가 1개관으로 조사되었다.

〈표 8〉 청소년 공간 운영계기 (복수응답)

구분	N	%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요구	4	16.00
도서관의 자체적인 판단	14	56.00
교육청 및 지자체의 요청	2	8.00
청소년 전용 공간을 운영 중인 타 지역 도서관의 영향	3	12.00
도서관의 지역사회 환경(학교 밀집 및 청소년 운집 지역)	1	4.00
기타: 모름	1	4.00
계	25	100.00

(4) 청소년 요구 수렴 여부

청소년 공간(전용 자료실, 전용 코너 및 서가)을 조성할 때 청소년의 요구를 수렴하였는지 확인해 본 결과, 2개관만이 청소년의 요구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16개관은 청소년의 요구를 수렴하지 않고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청소년 공간을 구성하였다고 하였다.

〈표 9〉 도서관의 청소년 공간 계획 시 청소년 요구 수렴 여부

구분	N	%
예	2	11.11
아니오	16	88.89
계	18	100.00

2. 사서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

사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 서비스 및 청소년 전용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사서의 인식이며, 둘째는 ‘청소년 전용 공간 운영 방안’에 대한 사서의 인식이다.

가. 청소년서비스 및 청소년 전용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사서의 인식

(1) 도서관 이용자로서 청소년의 중요성

사서들이 다른 이용자와 비교해 청소년을 도서관의 이용자로서 어느 정도 중요하게 인식하는지를 5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청소년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평균값은 4.01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응답한 사서 중 78.17%는 청소년을 중요한 서비스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16.90%,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93%에 그쳤다. 이는 사서들이 전반적으로 청소년을 공공도서관 서비스에서 중요한 이용자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0〉 도서관 이용자로서 청소년의 중요성 인식

구분	N	%	M	SD
매우 중요하다	40	28.17	4.01	0.829
다소 중요하다	71	50.00		
보통이다	24	16.90		
별로 중요하지 않다	6	4.23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0.70		
계	142	100.00		

도서관 서비스 대상으로 청소년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111명의 사서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주관식으로 질문한 결과 90명의 사서가 응답하였는데, 주관식 답변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먼저, 32명의 사서는 '청소년기가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평생 독자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26명의 사서는 '청소년의 도서관 방문 빈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점을 거론하며 도서관 이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도서관의 책임'이라는 점을 이유로 언급하였다. 또 다른 26명의 사서는 '도서관이 청소년을 지원하는 제2 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거론하였다. 그 외에도 '청소년이 학습을 목적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4명), '지역사회에 청소년이 갈 만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2명) 라는 응답도 있었다.

〈표 11〉 도서관 이용자로서 청소년이 중요한 이유

구분	N	%
청소년기가 독서습관 형성과 평생 독자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에	32	35.56
청소년의 도서관 이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도서관의 책임이라서	26	28.89
청소년을 지원하는 제2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해	26	28.89
청소년이 학습을 목적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	4	4.44
지역사회에 청소년이 갈 만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	2	2.22
계	90	100.00

도서관 서비스 대상자로서 청소년이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7명의 사서들의 경우, ‘청소년이 학업 수행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시간이 없어서’, ‘청소년이 도서관에 오더라도 개인 공부를 위한 열람실만 이용하기 때문에’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2) 청소년 서비스의 필요성

청소년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을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청소년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평균 4.18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사서의 86.62%가 청소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서는 11.97%,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서는 1.4%로 전반적으로 사서들은 청소년 서비스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12〉 도서관 청소년 서비스의 필요성

구분	N	%	M	SD
매우 필요하다	48	33.80	4.18	0.721
다소 필요하다	75	52.82		
보통이다	17	11.97		
별로 필요하지 않다	1	0.70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0.70		
계	142	100.00		

사서들이 청소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관식으로 확인한 결과, 앞서 사서들이 청소년을 도서관의 중요한 이용자 집단으로 인식하는 이유와 대체로 일치하였다. 이외에 사서들이 추가적으로 거론한 이유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서들은 “현재 도서관 서비스가 성인과 어린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학교 교육이 주로 학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자율적 배움, 또래와의 교류를 지원하는 도서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도서관을 단순한 열람 공간으로만 인식하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3) 청소년 전용 공간의 필요성

청소년 전용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청소년 전용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평균 3.73으로 평균 이상으로 확인되었다(〈표 13〉 참조). 응답한 사서의 65.5%가 도서관에 청소년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22.54%는 보통, 11.97%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표 13〉 도서관 내 청소년 전용 공간의 필요성

구분	N	%	M	SD
매우 필요하다	30	21.13	3.73	0.960
다소 필요하다	63	44.37		
보통이다	32	22.54		
별로 필요하지 않다	15	10.56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1.41		
계	142	100.00		

도서관에 청소년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93명의 사서를 대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한 이유를 주관식으로 질의한 결과 57명의 사서가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서들의 답변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4〉와 같다. 먼저, 19명의 사서는 현재 공공도서관에 “청소년을 위한 전용 공간이 부재한 상황이 청소년의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 전용 공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일례로 사서는 “성인이 주로 이용하는 종합자료 실에서도, 초등학생 이하가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자료실에서도 청소년은 편하게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겉도는 느낌을 받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받지 않을 그들만의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사서들은 “공공도서관의 공간적 특성이 청소년 특성 및 상황, 요구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독립적이거나 자율적인 청소년의 다양한 특성 및 상황과 요구를 고려해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도서관에 있어야 한다”는 맥락의 의견을 17건 제시하였다. 이에 더해, 도서관에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생길 경우 “청소년의 도서관 방문과 이용이 활발”해질 것이라 예측한 의견도 11건 있었으며, 청소년만의 공간이 있을 경우 “청소년 컬렉션을 구축하여 제공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의 자료 접근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의견도 4건 있었다. 아울러, 청소년이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청소년만을 위한 공공기관이 지역 내에 부재하기 때문에 도서관이 그 기능을 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6건 있었다.

〈표 14〉 청소년공간이 필요한 이유

구분	N	%
청소년 전용 공간의 부재로 청소년의 공공도서관 이용에 제약이 있기에	19	33.33
공공도서관의 공간적 특성이 청소년 특성 및 상황, 요구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17	29.82
청소년의 도서관 방문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11	19.30
청소년 컬렉션 구축으로 청소년의 자료 접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4	7.02
지역 내 청소년을 위한 안전하고 건전한 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해	6	10.53
계	57	100.00

나. 청소년 전용 공간 운영 방안에 대한 사서의 인식

(1)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 방법에 대한 선호

공공도서관에 청소년 전용 공간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 물었을 때, 사서들이 가장 선호한 청소년을 위한 전용 공간 조성 방안은 ‘공공도서관 내 별도의 청소년 전용 공간 마련’이었다. 응답자 중 49%가 이 방안을 택하였다. ‘공공도서관 성인실에 청소년 전용 서가 및 코너를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은 33.80%였다. ‘청소년을 위한 전용 도서관을 건립’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9.15%였으며, ‘어린이실에 청소년 전용 서가 및 코너 마련’이 적절하다는 응답도 3.52%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어린이실과 종합자료실 이외의 기존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와 ‘청소년 전용 공간이 필요 없다’가 있었다.

〈표 15〉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 방법에 대한 선호

구분	N	%
청소년을 위한 전용 도서관 건물(단독 건물) 건립 필요	13	9.15
공공도서관 내에 별도의 청소년 전용 공간 마련	70	49.00
공공도서관 어린이실에 청소년 전용 서가 및 코너 마련	5	3.52
공공도서관 성인실에 청소년 전용 서가 및 코너 마련	48	33.80
기타(필요 없다)	6	4.23
계	142	100.00

(2) 청소년 요구 파악 및 청소년 참여에 대한 중요성

도서관 운영과정에서 사서들이 청소년의 요구를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며, 청소년의 참여를 어느 정도 보장하고자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항목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1) 청소년 전용 공간 설계 시 청소년의 의견과 요구를 파악해야 한다, (2) 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계획 시 청소년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3) 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시 청소년이 운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조사 결과, ‘청소년 전용 공간 설계 시 청소년의 의견과 요구를 파악해야 한다’는 평균값이 4.23, ‘청소년 전용 공간 설계 시 청소년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4.41, ‘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시 청소년이 운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4.01로, 대체로 청소년의 요구를 파악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표 16〉 참조).

〈표 16〉 청소년 요구 파악 및 청소년 참여에 대한 중요성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N	M	SD
	N	%	N	%	N	%	N	%	N	%			
청소년 전용 공간 설계 시 청소년의 의견과 요구를 파악해야 한다	3	2.11	4	2.82	15	10.56	55	38.73	65	45.77	142	4.23	0.904
청소년서비스와 프로그램 계획 시 청소년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1	0.70	1	0.70	7	4.93	63	44.37	70	49.30	142	4.41	0.686
청소년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시 청소년이 운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1	0.70	9	6.34	30	21.13	50	35.21	52	36.62	142	4.01	0.949
전체 평균											142	4.22	0.725

(3) 청소년 전용 공간의 세부 공간에 대한 선호

도서관 청소년 전용 공간 내 세부 공간 구성에 대한 사서들의 선호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 및 프로그램 공간’, ‘정보미디어 활용과 창작 공간’, ‘개인 학습 공간’ 등 다양한 공간 유형을 제시하고, 각 항목의 선호도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서들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한 공간은 ‘교육 및 프로그램 공간’으로, 평균값은 4.27로 나타났다. 이어서, ‘정보미디어 활용과 창작 공간’(평균 4.09), ‘독서 공간’(평균 4.06)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그 외에도 ‘놀이·취미·여가 활동 공간’(3.96), ‘전시 공간’(3.76), ‘청소년의 만남과 모임 공간’(3.68), ‘휴식 공간’(3.64), ‘개인 학습 공간’(3.23)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청소년 전용 공간의 세부 공간에 대한 선호(N=142)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M	SD
	N	%	N	%	N	%	N	%	N	%		
놀이·취미·여가 활동 공간	4	2.82	13	9.15	23	16.20	47	33.10	55	38.73	3.96	1.084
교육 및 프로그램 공간	2	1.41	0	0	20	14.08	56	39.44	64	45.07	4.27	0.807
정보미디어 활용과 창작 공간	1	0.70	8	5.63	23	16.20	55	38.73	55	38.73	4.09	0.914
개인 학습 공간	20	14.08	19	13.38	46	32.39	22	15.49	35	24.65	3.23	1.340
독서 공간	4	2.82	4	2.82	25	17.61	55	38.73	54	38.03	4.06	0.962
전시 공간	6	4.23	8	5.63	36	25.35	56	39.44	36	25.35	3.76	1.031
청소년의 만남 및 모임 공간	8	5.63	14	9.86	32	22.54	49	34.51	39	27.46	3.68	1.145
청소년 휴식 공간	8	5.63	11	7.75	43	30.28	42	29.58	38	26.76	3.64	1.126

(4) 청소년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

청소년 서비스와 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사서들의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사서들은 ‘진로교육’

프로그램(13.42%)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8〉 참조). 그 뒤를 이은 것은 ‘문화예술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12.84%), ‘독서 프로그램’(12.55%), ‘청소년 전용 공간 운영’(9.67%)이었다. ‘독서회 운영’과 ‘독서자료 안내 및 전시’, ‘동아리·모임 지원’이 각각 9.38%로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정보미디어활용 교육 및 체험’이 7.94%, ‘도서관운영 주체로 청소년 참여’가 5.63%, ‘청소년 자원봉사 운영’이 5.34%, ‘학교 과제 지원’이 2.74%, ‘교과 관련 도서 안내’가 1.73%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분석 결과, 사서들은 도서관에서 청소년에게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보다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8〉 청소년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 (복수응답)

구분	N	%
청소년 전용 공간 운영	67	9.67
독서프로그램 운영	87	12.55
독서회 운영	65	9.38
독서자료 안내 및 전시	65	9.38
문화예술 체험 및 교육	89	12.84
진로교육	93	13.42
교과관련 도서 안내	12	1.73
학교 과제 지원	19	2.74
정보미디어활용교육 및 체험	55	7.94
동아리·모임 지원	65	9.38
청소년 자원봉사 운영	37	5.34
도서관운영 주체로 청소년 참여	39	5.63
계	693	100.00

(5) 청소년 서비스 활성화 방안

청소년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사서들은 ‘청소년의 참여’를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참조). ‘청소년의 참여’는 전체 응답의 21.65%를 차지하며 최우선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된 사서의 ‘청소년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에서 사서들이 ‘동아리·모임 지원’이 9.38%, ‘도서관 운영 주체로 청소년 참여’가 5.63%에 그친 점과 비교되는 응답 결과로서,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사서의 전략적 차원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청소년 서비스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확보’(19.91%)가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청소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주요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예산’(14.72%), ‘청소년을 위한 전용 공간 확보’(12.77%), ‘청소년 서비스 정책 개발’(12.34%),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협력’(10.39%), ‘기관장의 인식과 의지’(7.58%) 순으로 응답이 나타나, 다양한 구조적 정책적 요소들이 청소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고려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표 19〉 청소년서비스 활성화 방안 (복수응답)

구분	N	%
청소년서비스 정책 개발	57	12.34
기관장의 인식과 의지	35	7.58
청소년을 위한 전용 공간 확보	59	12.77
예산	68	14.72
청소년서비스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보	92	19.91
청소년의 참여	100	21.65
관련 기관과의 협력	48	10.39
기타	3	0.65
계	462	100.00

3. 심층 면담 분석 결과

가. 청소년의 현재 삶

(1) 청소년의 주요 관심사

면담에 참여한 사서들에 의하면, 청소년 주요 관심사는 개개인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아직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으며, 각자가 처한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과 진학, 진로 문제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주요 관심사로 언급되었다. 성적의 경우,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이후 2학년에 올라와 처음으로 시험을 경험한 이후 성적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학업성취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진학의 경우, 중학교 3학년은 인문계 고등학교와 특성화고 중 진로 선택을 고민하며, 고등학생은 대학 진학을 둘러싼 현실적 고민에 직면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많은 청소년에게는 진로보다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진학이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들은 청소년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적과 진학이라는 즉각적인 과제에 몰입하다보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와 같은 존재적 질문을 숙고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로 인해 일부 청소년은 내면적 성찰 없이 사회와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 외적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특히 금전적 가치)를 삶의 목표로 수용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면담에 참여한 사서들은 청소년이 친구나 가족과의 갈등을 겪는 경우도 많으며, 이는 정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가정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마음 둘 곳이 없고 집에 가도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밖으로 도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우울감, 자해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

다. 또한 상대적 빈곤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청소년도 있으며, 전반적으로 많은 청소년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 공통된 진단이었다.

(2) 청소년에게 필요한 공간

면담에 참여한 사서들은 청소년에게 “언제든지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면담자 A) 공간, 즉 반드시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성과 중심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현재, 이 순간을 즐기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휴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울러, 면담 참여자들은 청소년이 시도해볼 수 있는 다양한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방송 제작, 영상 작업, 컴퓨터 작업, 음악 작업, 책 만들기, 좋아하는 것을 깊이 파고드는 작업(이른바 ‘덕질’) 등이 가능한 공간이 마련될 경우, 이는 청소년의 잠재적 역량 개발에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 전문가와의 만남 등은 청소년이 세상과 자기 삶에 관한 생각과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언급하였다.

면담 참가자들은 공공도서관이 모든 청소년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첫째, 해당 공간은 비용 부담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해야 하며, 둘째, 모든 이용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성향과 선호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 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청소년을 위해서는 독립된 공간이, 또래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청소년을 위해서는 공용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생일 파티 공간, 보드게임 공간, 레고 공간 등 상황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재배치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의 조성 역시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었다.

(3) 현재 청소년의 삶에서 공공도서관의 의미

면담에 참여한 사서들에 의하면 현재 공공도서관이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공도서관은 작가 특강이나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이 ‘좋은 어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도서와 비도서 자료를 통해 진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기관이지만, 어릴 때부터 가족과 함께 공공도서관을 이용해 온 일부 청소년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대다수의 청소년에게는 낯선 공간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 자료실이 마련된 공공도서관이 극히 일부라는 사실과도 연결된다. 면담 참여자들은 청소년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공도서관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쉬운 상황이라고 언급하였다.

“도서관에 가면 보통 어린이실이나 종합자료실은 있지만 청소년 자료실에 있는 공간이 되게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뭔가 어련하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아나 어린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종합자료실 같은 경우에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공간에서는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할 수 없어서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의 공간이라고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 도서관에서 뭔가 편안하게 친구와 얘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지요.” (면담자 B)

면담에 참여한 사서들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을 낯선 공간으로 인식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없거나, 도서관을 단지 공부하거나 책을 읽는 장소로만 한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책을 읽는 행위를 즐거운 경험으로 접해보지 못했거나, 독서가 일종의 과업처럼 느껴지는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의 독서 강요가 오히려 도서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공공도서관을 ‘조용히 해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청소년일수록 자유로운 분위기의 스터디 카페를 학습공간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공공도서관을 고리타분하고 경직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인식이 공공도서관 방문을 회피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면담 참가자들은 진단하였다.

나. 공공도서관 청소년 전용 공간의 강점 및 한계

(1) 공공도서관 청소년 전용 공간이 가지는 강점

면담에 참여한 사서들은 공공도서관 청소년 전용 공간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 양육자와 보호자가 안심하고 청소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라고 하였다. 평소 공공도서관을 믿을만한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그 안에 청소년 전용 공간이 생겼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면담 참가자들은 공공도서관이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이라는 것도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족이 함께 공공도서관을 방문하여 각자 자기에게 맞는 공간으로 흠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서들은 공공도서관 청소년 전용 공간을 방문한 청소년이 단지 특정 공간의 이용에 그치지 않고 도서관 내의 다른 공간으로 이동 탐색하게 됨으로써 도서관 전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공공도서관 청소년 전용 공간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도서관을 보다 친숙하게 여기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도서관의 평생 이용자가 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한편, 도서관을 다각도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책이라는 콘텐츠가 하나의 공부를 위한 목적이거나 수단이 아니라, 휴식과 문화 향유의 개념이라는 것도 인지할 수 있”(면담자 B)게 되는 것 역시 공공도서관이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다.

(2) 공공도서관 청소년 전용 공간의 한계 및 극복 방법

면담에 참여한 사서들은 공공도서관 청소년 전용 공간 운영의 주요 한계 중 하나로 해당 공간을 담당하는 인력의 지속성과 안정성 문제를 지적하였다. 특히, 사서 공무원의 경우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을 하게 되는데, 처음 공간이 생겼을 때 업무를 담당하던 사서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경우 공간 운영에 변화가 생길 수 있고, 그 변화가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청소년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친해졌던 사서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낯선 사람에게 다시 적응을 시작해야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소년이 새로운 담당자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도서관 이용의 지속성과 정서적 안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이용자들의 민원에 대한 우려 또한 제기되었다. 면담자 B가 근무하는 공공도서관에는 청소년 전용 공간이 있는데, “왜 어른들은 이용하지 못하냐”, “아이들이 오지 않는 오전 시간대에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냐”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 면담자 B는 청소년이 아닌 다른 연령대의 이용자가 청소년 공간에 대해 넣는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제일 큰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면담자 C가 근무하는 공공도서관은 청소년 특화 도서관으로 원래 청소년 서가가 따로 있었으나, 이를 일반 서가와 통합하게 되면서 청소년의 참여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또, 개관 당시 청소년을 위해서 음악과 소음이 있는 도서관을 컨셉으로 하였으나 성인 이용자의 민원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도 거론하였다. 성인의 민원에 응대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보다 성인의 요구를 우선시할 경우 청소년 이용자의 도서관 참여도가 낮아질 수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청소년 서가가 원래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일반 서가랑 통합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 어른들이 조금 더 편하게 오는, 그래서 어른들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진? 근데 어른들이 많이 오면 청소년이 많이 못 오는 게 특징이거든요.” (면담자 C)

“저희가 원래는 시끄러운 도서관, 소란스러운 도서관, 이스라엘과 같은 중얼중얼거려도 이상해하지 않는 도서관, 이런 것으로 공간을 꾸며달라는 이야기가 개관 때 있어서 계속 소란소란, 도란도란 컨셉으로 가고 음악도 나오고 하는데요, 그동안 너무 조용히 하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 매일 오시는 어르신과 시비가 약간 있었던 것도 있고요.” (면담자 C)

면담자 C는 청소년이 아닌 이용자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총 책임자인 관장이 민원을 담대하고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전용 공간의 의미를 사서 스스로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이 아닌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그 의미를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애초에 도서관 안에 청소년 전용 공간을 만든 취지를

성인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간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부탁할 때 성인 이용자들도 공간의 의미를 이해하고 배려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공공도서관 청소년 전용 공간

(1)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공공도서관 청소년 전용 공간

면담 참여자들에 의하면, 공공도서관 청소년 전용 공간이 오롯이 청소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공간의 사용자인 청소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간 운영 주체인 도서관 내부의 관점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공도서관 운영자 측에서 청소년에게 무언가를 제공한다는 관점이 아닌, 청소년이 이 공간을 직접 만들어간다는 관점을 분명히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면담 참여자들은 도서관 사서가 청소년 이용자의 조력자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역할 전환은 바로 새로운 운영 방식이자 지도력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사서의 호칭을 ‘선생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꾸어 부르는 것도 청소년과 담당사서가 평등한 관계, 거리감 없는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면담 참여자들은 언급하였다.

면담 참여자들은 공간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청소년과 함께 하는 것이 공간의 주인이 청소년이라는 것을 청소년이 직접 느낄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 설계에 반영하는 단계, 디자인하는 단계, 운영하는 단계에 모두 청소년의 목소리가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특히,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청소년 자치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공간의 운영 주체가 청소년임을 주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최근에 저희가 청소년 자치위원회라고 해서 새로운 형태의 자치위원회를 조금 더 모집을 했고요,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공간의 기획이라든지 트윈 세대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해요. [...] 지원 신청서를 내고 저희가 매니저(사서)들끼리 회의를 붙여서 선발을 거쳤고요, 저희 공간을 기획했고 이제 새로운 구성이나 기획을 구성해야 될 때 아이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듣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면담자 B)

(2)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방식의 예

면담 참여자들은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을 다수 추천해주었다. 면담자 B는 청소년의 아이디어가 성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궁무진하므로 청소년의 아이디어를 직접 듣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청소년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었다.

면담자 C는 본인이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W공공도서관에서 실행하고 있는 청소년 중심 운영 방식을 예로 들었다. W도서관은 청소년 특화 도서관으로 청소년 서포터즈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 독서회 분과, 북큐레이션 분과, 신문 만드는 분과, 축제 기획 분과로 구성되며 사서는

임원으로 참여한다. 분과별로 월 2회 모임을 하고 총회는 1년에 3회 정도, 축제는 1년에 1회 진행하고 있다. 정기총회를 통해 의장의 선발, 분과 활동 계획의 승인, 정관 개정 등을 진행하며, 축제의 경우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각 분과별로 부스를 운영한다.

면담자 C는 이렇게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해가는 방식의 뿌듯함 이면에 사서의 고충도 뒤따른다는 것을 언급해 주었다. 청소년을 보조하려면 수시로 그들과 소통해야 하는데, 청소년과 사서의 활동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사서가 근무 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주말에도 청소년 모임이 있기 때문에 사서들은 주말에 개인 스케줄을 거의 잡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청소년에게 자발성을 만들어 주는 과정에서 사서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러한 운영 방식의 이면이라고 할 수 있다.

(3) 청소년이 가고 싶어지는 공간이 되기 위한 노력

청소년이 가고 싶어지는 도서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면담 참여자들은 입을 모았다. 면담자 A는 청소년의 특성과 관심사를 이해하려는 노력, 청소년을 이해하려는 열린 자세가 있을 때 그들과의 대화도 가능하며, 그것이 바탕이 되었을 때 청소년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청소년들, 그 시기 아이들의 특성이나 그 또래들의 관심사나 문화, 이런 것들을 먼저 많이 이해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다른 지역의 청소년 전용 공간을 돌아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은 아이들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아이들을 알아야지 아이들하고 대화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열린 마음부터 가지는 게 많이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또, 학교 밖 청소년이나 한부모 가정 자녀, 조손 가정 자녀, 그런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면담자 A)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공간의 운영에 있어 사서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전제 하에,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청소년 전용 공간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에서 청소년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25개관과,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청소년 담당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서비스를 담당 한 경험이 있는 사서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공공도서관 내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적 방향을 제안하였다.

부산시 공공도서관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은 주로 성인실에 청소년 서가나 코너를 마련하는 형태였으며,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전용 공간이 있는 도서관은 1개관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위한 서가나 코너 등 별도의 공간이 없는 곳도 7개관이 있었다. 이를 미루어볼 때, 부산 지역 공공도서관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전용 공간에 기반하는 서비스가 미흡하여 청소년의 독서자료에 대한 원활한 접근이 어려우며,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과 교육활동을 지원하기에는 제한점이 많았다.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공간은 주로 청소년 서가와 코너를 중심으로 자료를 비치하고 열람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휴식이나 친교를 위한 모임, 놀이 및 창작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곳은 소수에 국한되어 있었다. 청소년 코너와 서가 등의 청소년 공간 설계 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도서관은 2개관에 머물렀다.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전반적으로 청소년 이용자와 청소년 서비스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청소년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들은 공공도서관이 대체로 어린이실과 종합자료실로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의 자료 접근 및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또래 관계가 중요하고 방해받지 않으려 하는 청소년의 독립적인 특성을 반영해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들은 지역 내 청소년이 갈만한 공공기관이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해 공공도서관이 안전하고 건전한 청소년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서들은 청소년 공간 설계나 프로그램 기획 시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 서비스와 프로그램 운영에서 청소년을 운영 주체로 참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향후 공공도서관의 공간 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 시 청소년이 참여하여 그들의 의견이 개진되고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 자문그룹을 구성하는 등의 시도가 따라야 할 것이다.

사서들이 선호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위한 진로 교육, 문화예술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독서 프로그램이며, 상대적으로 학교 과제 지원이나 교과 관련 도서 안내 등 청소년의 학업 수행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청소년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청소년의 정보요구를 파악하고, 청소년의 정보요구 유형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서비스 및 프로그램 순위를 안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서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청소년의 참여'라는 점 역시 청소년의 정보요구를 적극적으로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심층 면담에 참여한 사서들에 의하면, 청소년은 각각 개별의 존재이므로 각자가 놓인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관심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학교 성적과 진로, 진학은 대다수 청소년의 화두이며, 특히 학업 성취도가 높은 청소년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 모든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공간은 언제든지 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라고 면담 참여자들은 말했다. 그러나,

그 공간이 공공도서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어릴 때부터 가족과 함께 공공도서관을 이용해 온 청소년에게는 도서관이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유용하고 편안한 공간이지만, 해당 경험이 없는 대다수의 청소년에게 공공도서관은 여전히 낯선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도서관에 청소년 자료실이나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이 별도로 마련된 곳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청소년이 공공도서관에서 환영받는다느 느낌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에 청소년 전용 공간을 만드는 것은 보다 많은 청소년에게 도서관을 긍정적으로 경험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에 청소년 전용 공간이 생길 때 가질 수 있는 큰 장점은 양육자와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라고 면담 참여자들은 말했다. 이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에 기반하는데, 공공도서관은 전통적으로 지식의 보고이자 정보의 허브로서 기능하였으며, 학교 교육의 조력자이자 평생학습 기관의 역할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면담 참여자들은 청소년 전용 공간에서 생기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 성인 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태도는 도서관의 책임자인 관장의 담대하고 강한 자세이며, 청소년 전용 공간의 취지를 다른 연령층의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킬 때 해당 공간을 원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공공도서관 내 청소년 전용 공간의 마련은 청소년의 활발한 도서관 이용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청소년 전용 공간의 운영에 있어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도서관 관계자들의 인식 변화이다. 청소년 전용 공간의 주인이 청소년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청소년이 직접 도서관에서 자신들의 공간을 만들어간다는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청소년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은 청소년 자료 수서, 청소년을 위한 도서 추천,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등이 있을 것이다. 도서관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핵심 청소년 그룹을 만들어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하고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도서관의 운영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Braun et al.(2014, 16)이 YALSA의 연구보고서로 발표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도서관 서비스의 미래: 실천을 위한 제안(*The Future of Library Services for and with Teens: A Call to Action*)’에서 이미 강조된 바 있다. Braun et al.은 “도서관의 물리적인 건물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청소년 뿐 아니라 모든 청소년이 도서관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개발과 실행, 평가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만이 아니라, 앞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 모두가 도서관에 관심을 갖고 도서관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이 각자의 고민거

리를 안고, 또는 미래에 대한 꿈을 품으며, 또는 그저 별다른 이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도서관에 마련되고, 그들의 시각과 의견을 존중하는 사서가 그 공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공공도서관은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가도서관통계 (2023). 공공도서관 - 주요 통계 - 공공도서관 수. 출처:
<https://www.libsta.go.kr/statistics/public/main>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25). 도서관이용안내. 출처:
<https://nlcy.go.kr/NLCY/contents/C50201000000.do>
- 문화체육관광부 (2024) 2023년 국민독서실태조사 (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0154-10 / 승인번호 제113018호). 출처: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18001
- 서울특별시 도서관연구회 (1985). 청소년문제와 공공도서관의 역할. 서울시도서관연구회, 2, 77-82.
- 서유진 (2022). 공공도서관의 트윈세대 공간조성에 관한 사서 인식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20(3), 87-98. <https://doi.org/10.55063/KIYFE.2022.20.3.8>
- 서초청소년도서관 (2025). 시설상세현황. 출처: <https://seocho.seocholib.or.kr/LibFacility>
- 월곡꿈그림도서관 (2025). 공간이용. 출처:
<https://www.sbiblib.seoul.kr/wglib/menu/11027/contents/40191/contents.do>
- 이경란, 한복희 (2009). 공공도서관 청소년프로그램 분석과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4), 115-130.
- 이연옥 (2025).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전용 공간과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의 요구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9(1), 143-167. <http://dx.doi.org/10.4275/KSLIS.2025.59.1.143>
- 이정미 (2015). 청소년의 도서관 인식 및 정보원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3), 351-370. <https://doi.org/10.4275/KSLIS.2015.49.3.351>
- 이진화, 강은영 (2022). 공공도서관 청소년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부산·울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1), 95-122. <https://doi.org/10.14699/kbiblia.2022.33.1.095>
- 이혜원, 장선화 (2022). 청소년의 공공도서관 이용만족도 분석 및 서비스 발전 방안 연구 - 서울특별시 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3), 397-417.
<https://doi.org/10.14699/kbiblia.2022.33.3.397>
- 장아리 (2018). 공공도서관 공간특성 및 청소년 이용태도 조사연구.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54,

- 153-164. <https://doi.org/10.18555/kicpd.2018.54.15>
- 전주도서관 (2025). 우주로 1216은. 출처:
https://lib.jeonju.go.kr/index.jeonju?menuCd=DOM_000000109001000000
- 지선, 장윤금 (2017). 공공도서관 공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및 요구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4), 461-480. <https://doi.org/10.14699/kbiblia.2017.28.4.461>
- 청소년기본법. 법률 제20953호. 출처: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796228&lsId=000816&print=print>
- 청소년 보호법. 법률 제18550호. 출처: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101&lsiSeq=237401#0000>
- 춘천시립공공도서관 (2025).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시설현황. 출처:
<https://library.chuncheon.go.kr/library-useinfo/library-info/youth/facility-info/>
- 황윤정, 이경연, 변기동, 하미경 (2024). 공공도서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청소년전용공간 환경계획 요소에 관한 기초연구. 2024년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4(1), 33-36.
- Agosto, D. E., Bell, J., Bernier, A., & Kuhlmann, M. (2015). "This is our library, and it's a pretty cool place": a user-centered study of public library YA spaces. *Public Library Quarterly*, 34, 23-43. <https://doi.org/10.1080/01616846.2015.1000777>
- Agosto, D. E. & Hughes-Hassell, S. (2005). People, places, and questions: an investigation of the everyday life information-seeking behaviors of urban young adults. *Library & Information Research*, 27, 141-163. <https://doi.org/10.1016/j.lisr.2005.01.002>
- Bernier, A., Males, M., & Rickman, C. (2014). "It is silly to hide your most active patrons": exploring user participation of library space designs for young adults in the United States. *The Library Quarterly: Information, Community, Policy*, 84(2), 165-182. <https://doi.org/10.1086/675330>
- Boston Public Library (2025). Central library: teen central. Available:
<https://www.bpl.org/services-central-library/teen-central/>
- Braun L. W., Hartman, M. L., Hughes-Hassell, S., & Kumasi, K. (2014). The future of library services and with teens: A call to action. Available:
<https://alair.ala.org/server/api/core/bitstreams/3f1d8de6-e6de-4fef-b0ab-a7d0eb8ff7f3/content>
- Cranz, G. & Cha, E. (2006). Body-conscious design in a teen space: post-occupancy evaluation of an innovative public library. *Public Libraries*, 45(6), 48-56.

- digitalyouthnetwork (2009, August 22). YouMediaChicago. Available:
<https://www.youtube.com/watch?v=yRG2Bf-me6k>
- Fisher, H. (2003). A teenage view of the public library: what are the students saying? *Australasian Public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16(1), 4-16.
- Howard, V. (2011). What do young teens think about the public library? *The Library Quarterly: Information, Community, Policy*, 81(3), 321-344.
<https://doi.org/10.1086/660134>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2008).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for young adults. Available:
<https://repository.ifla.org/items/8db02f15-7c93-4ebe-98d0-fa39f2c2b25e>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2018). IFLA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to children aged 0-18. Available:
<https://repository.ifla.org/server/api/core/bitstreams/362d7ec8-c94c-4922-a7fc-d202d9eed5bb/content>
- Kuhlmann, L., Meghan, Agosto, D. E., Bell, J. P., & Bernier, A. (2014). Learning from libraries and teens about YA library spaces. *Public Libraries*, 53(3), 24-28.
- Meyers, E. (1999). The coolness factor: ten libraries listen to youth. *American Libraries*, 30(10), 42-45.
- Ornstein, E. & Reid, P. H. (2022). Talk to them like they're people: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teen-centred approaches in public library services.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54(3), 451-468. <https://doi.org/10.1177/09610006211020090>
- teenscapelapl (2025, March 13). teenscape instagram post. Available:
https://www.instagram.com/teenscapelapl?utm_source=ig_web_button_share_sheet&igsh=ZDNlZDc0MzIxNw==
- TESSA (2025). Central library teen'scape. Available:
<https://tessa2.lapl.org/digital/collection/photos/id/101630>
- United Nations (2025). Youth. Available: <https://www.un.org/en/global-issues/youth>
-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2025). Adolescent development and participation. Available: <https://www.unicef.org/adolescence>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5). Adolescent health. Available:
https://www.who.int/health-topics/adolescent-health#tab=tab_1
- YOUmediaChicago (2018, April 28). About YOUmedia. Available:

<https://www.youtube.com/watch?v=Sj1HE5i8eGk>

Young Adults Library Services Association (2012). National teen space guidelines. Available:
<https://www.ala.org/sites/default/files/yalsa/content/guidelines/guidelines/teenspaces.pdf>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ang, Ah Ri (2018). A study o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public libraries for adolescents and user's attitudes. *Journal of Cultural Product & Design*, 54, 153-164.

<https://doi.org/10.18555/kicpd.2018.54.15>

Chi, Sun & Chang, Yunkeum (2017). A study on the young adult's perceptions and needs towards the public library spac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4), 461-480. <https://doi.org/10.14699/kbiblia.2017.28.4.461>

Chuncheon City Public Library (2025). Chuncheon city youth library facility status. Available:
<https://library.chuncheon.go.kr/library-useinfo/library-info/youth/facility-info/>

Hwang, Yun-Jeong, Lee, Gyeong-Yeon, Byun, Gi-Dong, & Ha, Mi-Kyoung (2024). A basic study on environmental planning factors for teen space to improve public library satisfaction. *Proceedings of 2024 Spring Annual Conference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44(1), 33-36.

Jeonju Library (2025). Oozoro 1216 is. Available:

https://lib.jeonju.go.kr/index.jeonju?menuCd=DOM_000000109001000000

Lee, Heywon & Jang, Seonhwa (2022). A study on analyzing adolescents' user satisfaction survey and suggesting service development plan: focusing on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3(3), 397-417. <https://doi.org/10.14699/kbiblia.2022.33.3.397>

Lee, Jeong-Mee (2015). An exploratory study on adolescents' perceptions of library and their information us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3), 351-370. <https://doi.org/10.4275/KSLIS.2015.49.3.351>

Lee, Jin-Hwa & Kang, Eun-Yeong (2022).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tasks for young adult in public libraries: with a special reference to Busan · Ulsan · Gyeongnam.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3(1),

- 95-122. <https://doi.org/10.14699/kbiblia.2022.33.1.095>
- Lee, Kyeong-Ran & Hahn, Bock-Hee (2009). A study on young adults' programs analysis & revitalization in publ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4), 115-130.
- Lee, Yeon Ok (2025). A study on youth needs for youth spaces and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9(1), 143-167. <http://dx.doi.org/10.4275/KSLIS.2025.59.1.143>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4) 2023 National reading status survey. (Publication Registration Number: 11-1371000-000154-10 / Authorization Number 113018). Available: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18001
-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2025). Library usage guide. Available:
<https://nlcy.go.kr/NLCY/contents/C50201000000.do>
-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2023). Public libraries - Key statistics - Number of public libraries. Available: <https://www.libsta.go.kr/statistics/public/main>
- Seochon Youth Library (2025). Facility details. Available:
<https://seocho.seocholib.or.kr/LibFacility>
- Seoul Metropolitan Library Research Association (1985). Youth issues and the role of public libraries. *Seoul Metropolitan Library Research Association*, 2, 77-82.
- Suh, Yoo Jin (2022). A study on the librarians' perception about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tween space in public libraries.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20(3), 87-98. <https://doi.org/10.55063/KIYFE.2022.20.3.8>
- The Framework Act on Youth. Act No. 20953. Available: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796228&lsId=000816&print=print>
- The Youth Protection Act. Act No. 18550. Available: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101&lsiSeq=237401#0000>
- Wolgokkkumgeurim Public Library (2025). Space utilization. Available:
<https://www.sbiblib.seoul.kr/wglib/menu/11027/contents/40191/contents.do>

